

최저 임금법 위반 무조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법조칼럼



박생한
변호사 (법률 사무소 미래)

최저 임금을 계산하는 법이 쉽지 않다. 실제 사업주는 물론 법조인들도 쉽게 이해하기 힘든 구조다. 그러다 보니 무조건적인 처벌로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무직원 A씨. 그는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작년까지는 실제 근무시간인 174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시급을 공한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작년까지는 이렇게 최저임금시급을 계산해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74시간이 아닌 209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8,350원이 아닌 10,030원이 된다. 이를 월급으

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이 된다. 대기업이 아닌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작년 시급 7,530원에 이어 올해는 10.9% 오른 8,350원이 되었다. 작년에 비해 인상폭이 크지 않으니 인상에 관한 쟁점은 그다지 많지 않다. 문제는 주휴수당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연말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도 임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문제는 갑작스런 도입으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일하지 않는 수당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으로써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의 판례의 태도를 정면으로 뒤집었다. 일하지 않은 시간인 주휴수당까지 포함시켜 지급하도록 태도를 바꾼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위반으로 기소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과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하지만 최저임금법은 처벌

불원에 의한 공소기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발되면 무조건 처벌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많은 사업주가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최저임금법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자기진작과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선진국도 이런 근거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규제가 강하면 그것 또한 문제다.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주휴시간이 포함된 월 209시간이 어떻게 도출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사정이 이런데도 복잡한 법규 내용을 손보기 보다 법을 위반하였다고 처벌만 하다가는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지 않을까 걱정이다.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전 국민을 범법자로 몰아넣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 격언에 “법은 최소한”이라는 말이 있다.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규제는 적어도 비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모르고 1회 위반한 사람과 고의적으로 여러 번 위반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지나치면 언젠가 탈이 나게 마련이다.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해서도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천관산

기고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하늘에서 내린 면류관을 쓴 댜오. 그래 그런지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소’ 촌로의 말씀이다. 관산읍과 대덕읍을 잇는 해발 723m 높이지만 지리산, 내장산, 변산, 월출산과 더불어 호남 5대 명산의 이수가 있을 듯하다. 큰길은 돌아다니 셋길이다. 양옆으로 돌탑이 마주한다. 1998년 도립공원 지정에 지역주민들이 단풍나무를 심고 400여 탑을 쌓으며 기쁜 흔적이다. 그 끄트머리에 문달이 우뚝하다. 15m 높이에 이 고향 오십여 문인들의 소망을 담았다.

문화공원 위로 뚝배나무가 이어진다. 산중이라 추운지 아직 꽃망울도 맺지 않았다. 계곡 옆으로 반야굴이 쳐우이다. 바위를 지붕삼아 처마를 잇고 벽을 쌓아 문을 달았다. 만상의 이치를 깨우친 부처님(반야여래) 좌상이 희미한 불빛 안이다. 굴문을 벌이는 동에 산불이 위험하다며 굳게 닫아버렸다. 선방체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다. 산중 위로 높게 자란 참나무 6형제와 비자나무, 사스레나무가 빼곡하다. 그 하늘을 오르니 보이지 않던 천상의 공간이

펼쳐진다. 우리나라 불교 태동지라는 탑산사다. 문없는 문을 들어선다. 통일산이라 창건됐고 의상대사와 육신불 침공선사가 수행했던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 천관보살이 설법했던 곳이다. 세종대왕의 둘째 유(수양대군, 훗날 세종)가 석가의 일대기를 한글로 자세히 기록한 석보상절에 나와 있고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지제지의 기록이다. 하늘이 내렸는지, 사람이 쌓았는지 5층 아육왕탑이 경이롭다. 과거 7불의 하나인 가섭불이 좌선한 자리도 있다. 경주 황룡사 가섭불연좌석과 같은 맥이다. 자장의 불국토 ‘부처님의 깨달음을 끝없이 이행하는 세상’의 믿음이다. 아육왕은 인도 최초의 통일왕국을 세운 아소가 왕의 한역이다. 불교 포교에 힘쓰며 진신사리 서말 서대를 8만4천개의 통에 담아 각처에 불탑을 세웠으니 중국에 열아홉, 우리나라에도 천관산과 금강산에 두었다. 이곳 탑산사는 한때 89암자를 이끌며 큰절이라 불렸다. 그 내력을 도성 스님으로부터 들다보니 색다른 기운이 난다. 침향 차와 해우에 만 백설기가 시간을 잡는다. 안개 자욱한 앞 바다 위로 섬섬들. 청산도와 금당도가 저기란다.

인간의 생각에는 늘 시대상황이 융합되듯, 우리 불교에도 중국의 노장사상과 토속신앙이 들어왔다. 그 시작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년) 중국에서, 백제 침류왕 1년(384년)에 인도 마라난타가 영광 법성포로 들어와 불갑사를, 가야국 김수로왕에게 인도 아유타국 공주가 부처님을 모시고 와서 왕비(허황옥)가 되었고, 부처님 제자가 한라산 영실 존자암에서 직접 포교를 했다고도 한다. 아무려면 어떤가? 선을 닦으면 되는 것인데, 사람의 기록이니 그러지 못한 일들도 많았을 게다.

가파른 데크 길과 바위를 서둘러 오른다. 구룡봉이다. 구덩이 여럿이 아직 얼음 창이다. 폭 파인 돌굴

에 차양을 치면 빛깔이 스민다는 자리다. 바람길 옆으로 큰 돌기둥이 진주봉이다. 만권의 책이 겹겹이 쌓였다는 환희대에 오르니 내가 대장이다. 다른 30여개 기암에도 사자바위, 거북바위, 삼석암, 문주보혈암 등 저마다 사연이 있다. 그 끝자락에 정남진수목원이 무슨 일을 하든지 분주하고 수동제도 चल거리다. 또 천관산아생관으로 종자돈을 만들어 역대부농을 일으킨 성산인, 이십여 년 전에 이미 스마트팜을 시작한 청하영농에서 삼색 파프리카를 따는 100여명의 일손도 바쁘다. 오래도록 일어나는 장흥의 한 축이다.

1597년 8월 이순신 장군도 있었다. ‘금신전선 상수십이’ 12척의 배로 통제사에 채 취임한 곳이 회령포(회진)다. 한 달 후에 명랑대첩을 이끌었으니 꺼져가던 조선을 살린 기반이었다. 그날 장군은 산성아래 주막에서 졸부탕과 말린 분장이 무침에 막걸리를 내게 하여 군관들과 지친 몸을 풀었다. 오늘날 성화식당이 된 의향의 터에서 하늘수 막걸리를 더해 푸짐한 상이 차려지니 지난 주말 출출했던 길손의 배를 채운다.

이 땅은 문림이기도 하다. 관서별곡을 지은 기봉 백광홍은 가사문학의 효시였고 이청준, 한승원을 이어 한강까지 등단한 작가만도 120명을 넘는다. 예부터 천관산은 ‘돌로 생긴 기묘한 경치다. 관세음보살이 돌로 만든 배에다 진경을 실어왔다. 천공과 지제가 쌓여 북적이 가득 곳이다’ 했으니 이곳의 산과 바다, 풀과 사람, 대지와 바람이 그렇게 만들었을 거다. 가히 신산이라 할만하다. 봄 진달래, 여름엔 푸르고, 가을 익새와 단풍, 겨울 동백이 꽃이 되는 곳, 최근에는 동서의학이 하나로 만나 세계 최고의 치료시설을 갖추었으니 누군군 한번쯤 쉬어가지 않을 수 있 으랴?

기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꼭, 한번 터치해주세요. 넷째, 내릴 때 한쪽 발을 먼저 내린다. 정전기 방지 패드와 같은 원리로 몸과 차에 있는 정전기를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차 문을 열고 한 발을 먼저 내리고, 한 손으로는 차체를 잡으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린 뒤에는 주위를 마찰 때까지 차에 터치하는 게 좋습니다. 차에 탔다 내렸다 하는 과정 자체가 몸에 정전기를 쌓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주유 중에 불이 났다면 주유노즐을 절대 건드리지 않고 손을 떼어 합니다. 그리고 주유기에 있는 정지버튼을 제일 먼저 누르고 주변에 불이 났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린 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직접 불을 끄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되고 119에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은 습관으로 안전하게 셀프 주유하시고 나와 내 이웃의 안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석 (별고119안전센터)

사설

성비 불균형 더욱 심각해지는 광주·전남 교단

광주·전남 교단의 교원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한다. 남성 교원의 수에 비해 여성 교원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여초(女超)현상’이 뚜렷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여 교원의 비율이 편중된다는 것은 교사 수급의 불균형은 물론 남녀 교사들의 역할 모델 등의 측면에서 적잖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은 최근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성별 비율에서 광주는 초등 85%, 중등 75%, 전남은 초등 67%, 중등 69%가 여성 교원으로 채워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 중·고등 교원 합격자 34명(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중 여성 교원만 29명에 달했다. 특히 유치원(13명)과 특수학교 교원(11명)은 모두 여성 교원이 임용됐다. 공립 중·고등학교의 교원도 최종 합격한 99명 중 74명(75%)이 여성으로, 전년(64%)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전남 또한 초등 교원 전체 합격자 336명 중 224명, 중등은 457명 중 315명이 여성 교원으로 파악됐다.

과목별 성비 율현상도 뚜렷해졌다. 광주 중·고의 경우 25개 과목 중 국어·역사·음악·미술·일본어·보건·사서·영양·특수·기술·가정 등 11개

과목의 합격자가 전원 여성으로 선발됐다. 전남 역시 중국어·일본어·식물자원조경·보건·사서·영양 과목의 남성 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 국어는 30명 중 21명, 영어는 24명 중 20명, 일반사회는 20명 중 15명, 전문상담은 37명 중 32명이 여성 교원이었다.

신규 교원들의 여초(女超)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여성교원 비율 또한 1990년대 2~3%이던 것이 30% 안팎으로 늘었다. 교감 승진자 가운데 여성비율도 7~8년전까지만 하더라도 10% 미만이었으나 최근에는 50% 대로 치솟았다.

광주와 전남의 초등 교원 합격자 성비 불균형은 대도시와 도서벽지가 많은 농어촌 교육환경 등 특수한 여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한 수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가산점이 기존 6~8점에서 3점으로 축소되면서 교육대 출신 여성 응시자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학업에 첫 발을 내딛는 초등 학생들에게 남녀 교사의 역할 모델은 중요하다. 교원 각자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역할분담을 감안하면 교단 성비 불균형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교육당국과 지자체, 정부 차원의 교단 성비 불균형 해소와 교원 수급 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전국 최고 고령운전자 사고율 전남, 대책 절실

지난 11일 구례 용방면 편도 1차선에서 A씨(74·여)가 몰던 경차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전복돼 마을사람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8일에도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B씨(75)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다 브레이크를 잘못 밟아 맞은편 식당으로 돌진,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올들어 이같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전남의 경우 고령자 운전 교통사고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지난해 전남 고령자 교통사고는 1천884건으로 5년새 35.2%나 증가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223%나 많은 수치이며 사망률도 전국 대비 2.13배에 이른다. 전남 지역의 고령자들이 차량 운전에서 나섰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인구로만 보면 전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전남 노인인구 비율은 고흥 38.8%를 비롯해 보성(34.1.8%), 함평(43.1%), 신안(33.7%) 등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 중이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가 늘 수 밖에 없어 사고 급증은 예고된 시한폭탄이나 다름 없다.

고령운전자 사고는 인지 능력 저하가 주요인인

다. 젊은 세대보다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져 사고 대처능력마저 떨어져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각종 표지판을 확인하거나 운전 중 집중력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현재로서는 3-5년 단위의 운전 갱신 말고는 이렇다할 고령 운전자 대책은 없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운전 면허증 자율 반납을 유도하고 있을 뿐 강제 사항이 아니다. 실제 반납사례는 광주·전남에서 248건으로 미미한 편이다.

급증하는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려면 고령자들의 인지 및 사고 대처 능력검사 등을 강화하고 면허 반납에 따른 각종혜택 확대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참고 사례다. 일본은 운전 면허를 가진 반납할 경우 다급교통 요금을 큰 폭으로 할인해 주고 추가금 적용 등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개인의 생각도 바뀌어야 한다. 실용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돌발 상황에 대한 반응 속도는 비고령자에 비해 두 배나 느린 1.4초로 나왔다. 제동 거리 반응도 30-50대 운전자에 비해 2배가량 길다. 고령 운전자들이 자신의 운전 능력을 과신해서는 안된다. 운전 면허발급제도 개선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일 실질적인 교통 안전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나이테의 교훈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다. 계절에 따라 세포분열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 대체로 봄과 여름에는 세포가 빨리 자란다. 물이 충분해 공급돼 세포의 색이 연하고 면적이 넓다. 그러나 여름을 지나 가을이 오면 나무는 겨울을 준비한다. 세포가 천천히 자라 세포벽이 두껍고 색이 진해진다. 이렇게 연한 조직과 짙은 조직이 번갈아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나이테다.

나무가 똑같은 속도도 자라려면 나이테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일 년 내내 더운 열대 지방의 나무는 나이테가 없다. 나이테는 한 해에 한 개씩 생긴다. 이를 통해 나무의 나이를 알 수 있다. 나이테의 간격으로 나무가 어느 해에 잘 자랐는지, 또 어느 해에는 자라기가 힘들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나이테가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겨울에도 나무가 자란다는 사실이다. 햇빛 한 줄 쉼겨줄 단 하나의 잎 새도 없지만 나무는 차갑고 마른 땅에 몸을 막고 서서 봄을 준비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 어느새 마다가 생기고 나이테가 생긴다. 그런 점에서 나이테는 겸손과 고통의 산물이다.

갑작스레 나이테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회자되고 있는 한국식 나이 때문이다.

지난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한국식 나이 셈법을 없애달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한국 만 나이 세는 방법이 여러가지여서 불편하다는 호소다.

우리나라 나이 셈법은 크게 세 가지다. 태어 때부터 나이를 계산하는 ‘한국식 나이’를 비롯해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 때마다 1살씩 먹는 ‘만 나이’, 양력 1월1일부터 12월말 출생을 같은 나이로 묶는 ‘연 나이’가 그것이다.

이중 가장 익숙한 방식이 1살로 태어나 새해 첫날 1살을 더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다. 고대 중국에서 유래했다. 이 방식으로 나이를 셀 경우 12월31일생이기는 하루 만에 두 살을 먹게 된다. 혼선이 생긴다.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이 이 방식을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민법상으로는 ‘만 나이’를,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 셈법’을 사용한다. 제각각이다. 불면 호소가 잇따르자 나이 세는 법을 하나로 통일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최근 ‘연령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국식 세는 나이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와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로 인한 갈등, 연령 정보 전달 혼선, 특정 월 출신기피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럼에도 태어난 때부터 1살을 먹는 한국식 나이가 생명존중사상에서 부터 비롯됐다는 것까지 부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력력을 쇠고 나자 사람들은 나이를 따지느라 부산스럽다. 한해에 꼭 하나씩 나이테를 갖는 나무가 어쩌면 더 지혜로운 겨울을 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김대우 정치부 부장대우 ksd430@srb.co.kr



약슈터

발인데

정전기 방지로 셀프주유소 화재 예방하세요

건조한 겨울에 정전기가 오르는 순간엔 정말 찌릿하고 불쾌합니다. 걸음을 뒤텔 때, 생활에서 쇠로 된 부분을 만질 때 손끝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죠. 순간 손끝에서 따갑게 느껴지는 정전기의 전압은 수만 볼트라고 합니다. 가정용 전자제품 전압이 220V인 것을 생각하면 놀랍죠? 그럼 지금부터 정전기 방지로 셀프주유소에서 화재위험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주유 전 시동을 끈다. 셀프 주유가 아니더라도 모든 주유소에 방문했을 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꼭 시동을 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진의 스파크와 유증기가 만나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깜빡하면 안 되고 꼭 습관적으로 주유 전

에 시동을 꺼주세요. 둘째,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건조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정전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손을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물티슈 뿐 아니라 물에 손을 씻거나, 핸드크림이나 로션과 같은 보습제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혹은 간단하게 물티슈를 사용해 손을 닦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정전기 방지패드에 손을 문질러 준다. 주유소에서 제일 변하게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정전기 방지패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유소에 대부분 이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패드에 손을 슥터치하면 몸 안에 있는 전기가 분산되어 정전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균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주) 61234 광주시 북구 계동로 324(충동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문화체육부 (062)606-7737	정치부 (062)606-7722 사신부 (062)606-7762	경제부 (062)606-7713 뉴미디어부 (062)606-7760	사회부 (062)606-7730 서울지사 (02)313-18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E-mail md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